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HSBC survey로 본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
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시사점
전기차 전용플랫폼 개발 동향 및 전망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HSBC survey로 본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	1
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시사점	3
전기차 전용플랫폼 개발 동향 및 전망	6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8
--------------------	---

HSBC survey로 본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원호 (popiou@kdb.co.kr)

- ◆ 지속가능 투자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금융은 이미 투자자와 발행자의 의사결정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함.
- ◆ 이에 따라 기관의 전략수립시 지속가능경영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, 특히 발행자는 투자자 앞 매력적인 ESG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
□ 지속가능투자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금융이 이미 투자자와 발행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

- '18년 전세계 지속가능 투자자산 규모는 약 30.7조 달러 규모로 '16년 대비 34% 증가
 - 특히 일본의 증가세가 뚜렷*('16년 대비 4배 이상 급증)
 - * '20.8.31자 주간 KDB리포트 일본의 ESG 투자관련 동향 참고

전세계 지속가능 투자자산 규모 및 증가율

	2014년	2016년	2018년
자산규모(십억불)	18,276	22,890	30,683
2년간 증가율	-	25.2%	34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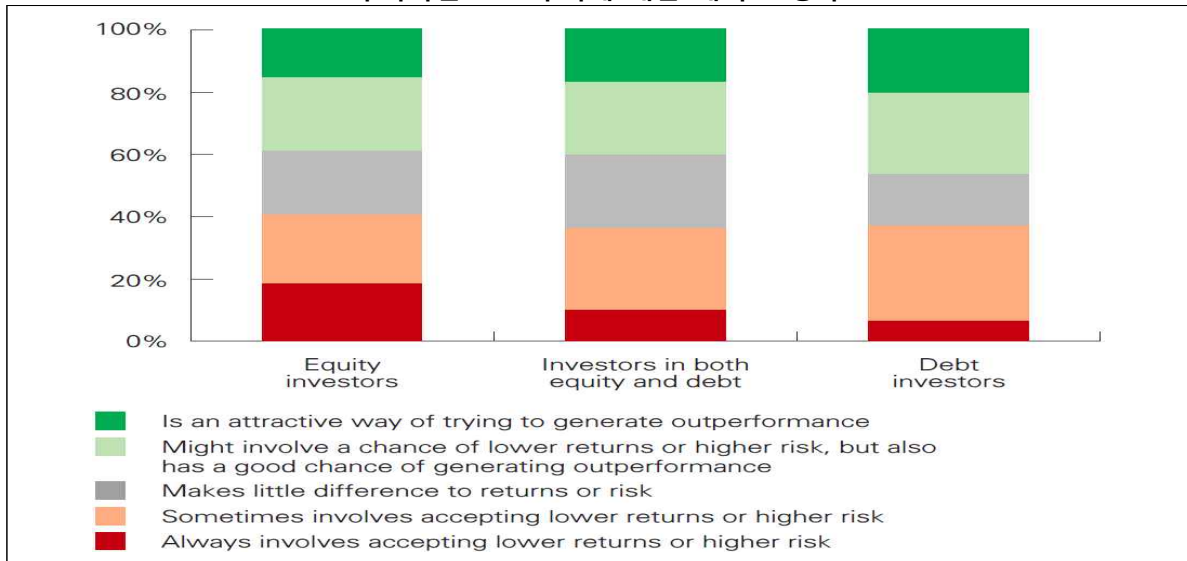
자료 :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

- HSBC의 지속가능금융과 투자에 대한 설문*에서도 조사대상 기관의 대부분이 환경과 사회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다고 응답(투자자의 94%, 발행자의 93%)
 - * Sustainable Financing and Investing Survey 2019 : HSBC가 미국, 유럽, 아시아, 중동의 1,000개 투자자와 발행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발표한 설문
 - 또한 92%의 투자자가 투자결정시 ESG 분야*를 고려한다라고 응답하여 투자 유치시 ESG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
 - * Environmental, Social and Governance factor
 - ESG의 공시와 관련해서도 ESG 관련 공시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발행자가 16% 미만으로 나타나 ESG에 대한 공시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중
- 응답자의 2/3의 투자자가 향후 2년 내 그린, 소셜, 지속가능 채권을 구입하거나 투자를 늘릴 것으로 응답
 - 그린, 소셜, 지속가능채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자들은 관련 채권발행 규모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잠재적 수요 보유

□ 전문지식 부족, 매력적인 투자기회 부족, 공시관련 문제점 등은 투자의 장애요인

- 응답자 중 60% 이상의 투자자들이 전문지식 부족, 매력적인 투자기회 부족, 발행자간의 ESG data의 비교불가 등을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언급
 - 이에 따라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인력교육, 양질의 투자 기회 제공노력, ESG 공시의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
- ESG 투자의 매력도 면에서는 리스크 대비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비율이 비슷한 수준
 - 긍정평가 비율이 41%, 부정평가 비율이 38%로 긍정과 부정평가 비율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바, 투자매력도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

투자자별 ESG 투자에 대한 매력도 평가



자료 : Sustainable Financing and Investing Survey 2019

□ ESG 상품에 대한 투자증가와 시장의 인식변화 등을 고려한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

- 사회적 책임경영, 지속가능경영 등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관의 전략수립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
-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ESG 투자기회의 개발 노력과 더불어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리스크 대비 수익성 향상 노력이 필요
 - 이와 더불어 ESG 공시와 인력교육 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준비해 투자 장애 요인 제거에 노력해야 할 것

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시사점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은영 (liey@kdb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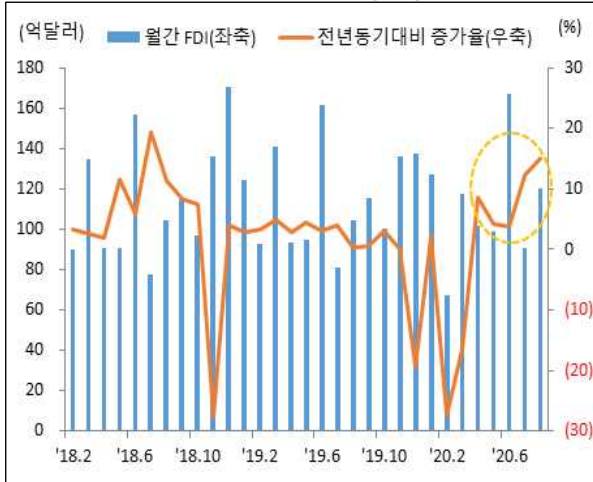
- ◆ 세계 전반의 해외투자가 급감한 가운데 코로나19 충격과 미·중 갈등 심화 등으로 '탈중국화'가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,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예년 규모로 계속 유입
- ◆ 신규 유입과 달리 투자 회수 등을 감안한 순유입액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내며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해왔던 기업들의 '탈중국화'를 반영
- ◆ 그러나 소매판매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는 등 '거대 소비시장'으로서의 중국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이를 겨냥한 해외기업의 신규 투자는 지속될 것임에 유의할 필요

□ 코로나19에 따른 충격과 '탈중국화'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예년에 근접한 수준 유지

- 세계적으로 해외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, 미·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에 대한 경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
 - 유엔무역개발회의(UNCTAD)는 당초 '20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5~15%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난 6월 감소폭을 40%로 수정
 - '19년에는 1조 5,40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'20년에는 '05년 이래 처음으로 1조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
 - 9.15일 미 상무부의 화웨이 추가 제재가 발효되어 지난 5월에 이미 반도체 신규 공급을 중단한 대만 TSMC에 이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도 납품 중단
 -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은 중국내 아이폰 생산 라인의 일부를 인도로 이전한다는 계획
 - 미국, 일본 등은 '탈중국 기업'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
 -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에 '서플라이체인 개혁'* 지원금으로 2,200억엔(약 2.5조원)을 배정, 7월 1차 대상으로 57개사 선정
 - * '20.4월 일본 내각부는 중국에 대한 제조업 의존도 완화,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 '서플라이체인 개혁'을 발표.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생산공장 중 일부를 본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이전할 경우 대기업은 비용의 절반, 중소기업은 2/3를 보조한다는 내용이 골자
- 실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액(inflow)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유지
 - '20.1~8월 누적 기준 89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.3% 감소하는 데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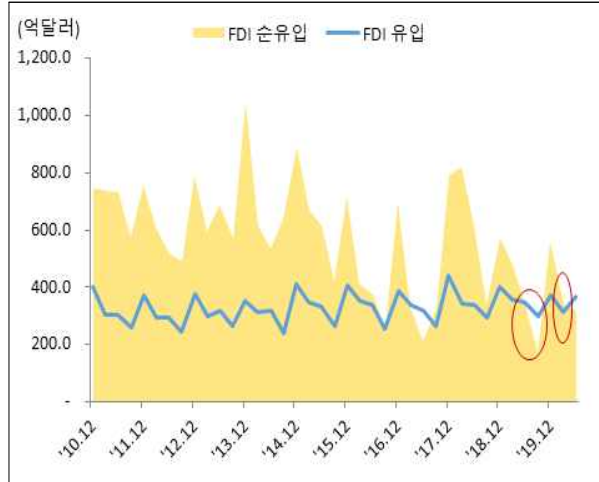
- '17.1~8월 815억달러 → '18.1~8월 865억달러 → '19.1~8월 892.6억달러
- 동기간 베트남의 FDI 유입액은 전년동기대비 14% 감소

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액



자료 : 중국 상무부, CEIC

중국의 FDI 순유입액과 유입액



자료 : 중국 국가외환관리국, 중국 상무부, CEIC

□ 다만 유출액 등을 감안한 순유입액(net inflow)*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 감소폭을 나타내 기존 외자기업의 투자 회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

* 중국 상무부가 집계하는 FDI 통계는 유입(flow) 기준이고, 국가외환관리국이 작성하는 국제수지표상의 FDI 통계는 순유입(net flow) 기준. 순유입액은 해당 기간의 신규 유입액에 해외 모회사의 수익재투자(미배당 수익) 및 계열사 부채(affiliates debt) 유입금을 더하고 투자 회수분을 제한 수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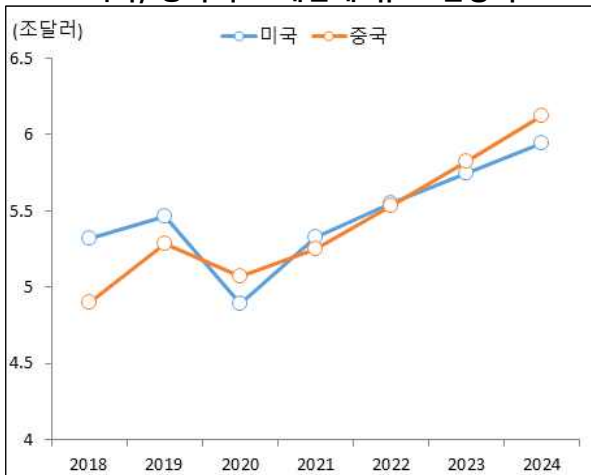
- 중국의 FDI 순유입액 규모는 '18년말부터 감소하기 시작, '20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9.5% 감소
 - FDI 순유입액은 18년 2,353.7억달러 → '19년 1,558.2억달러로 33.8% 감소
 - '19년 상반기 818.9억달러 → '20년 상반기 659.1억달러
 - '19년부터 순유입액과 유입액 차이가 빈번하게 역전, 모회사의 수익재투자 등이 축소되거나 기존 투자 회수 규모가 증가했을 소지
- 이와 대조적으로 인도는 적극적 외자 유치 등으로 동기간 순유입액 증가세 지속
 - '18년 421.2억달러 → '19년 506.1억달러로 20.2% 증가
 - '20.1Q에는 전년동기대비 55.1% 증가한 151.9억달러 기록

□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기업들의 '탈중국화'와 별개로, 거대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겨냥한 외자 진입은 지속되고 있음에 유의

- 중국 경제는 올해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소매판매 규모가 미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
 - '20년 미국을 비롯한 OECD 모든 회원국의 역성장이 예상되나, 중국은 2% 전후 플러스 성장 기대
 - * OECD('20.9)는 '20년 주요국 성장률을 미국 Δ 3.8%, 유로존 Δ 7.9%, 인도 Δ 10.2%, 중국 1.8%로 전망
 -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eMarketer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'20년 미국의 소매판매 규모는 4.9조달러, 중국은 5.1조달러를 기록하며 역전될 것이라고 전망
 - '19년에는 미국 5.5조달러, 중국 5.3조달러 기록
 - 위안화 가치는 강세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국 경제 펀더멘털 등을 반영
 -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'19.8월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7위안을 넘어섰으나 글로벌 팬데믹 우려가 고조된 '20.5월을 기점으로 하락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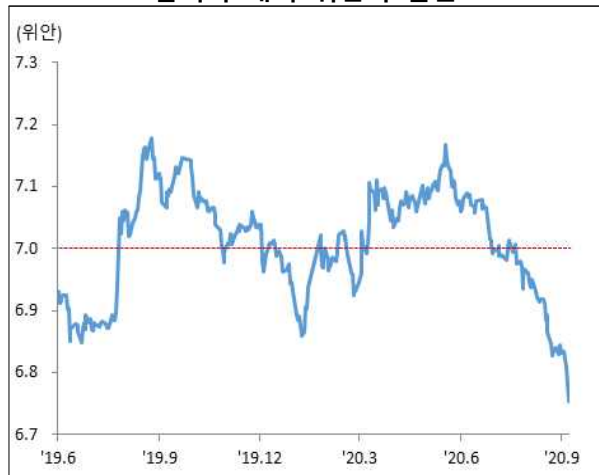
- 전기차, 화장품 등 중국의 소비 시장을 겨냥한 관련 해외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, 이들 품목의 판매는 빠른 회복세 시현
 - '19.12월 테슬라의 첫 해외 생산공장인 상하이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데 이어, 폭스바겐은 '20.5월 중국 전기차 기업에 21억유로(약 2.9조원)를 투자한다고 발표
 - 프랑스 화장품 그룹인 클라란스는 '20.9월 상하이에 최초의 해외 lab을 설립, 시세이도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日미용가전 제조사 YA-MAN과 합자사 설립
 - 한편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지난 7월 9.8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19.3% 증가하였고, 화장품 소매매출액은 14% 증가
 - 동기간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'모델3'를 11,014대를 판매하며 중국 전기차 시장 판매 1위 고수

미국, 중국의 소매판매 규모 전망치



자료 : eMarketer

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



자료 : 중국 외환거래센터, CEIC

전기차 전용플랫폼 개발 동향 및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조 정 용 (jwcho@kdb.co.kr)

- ◆ 환경규제로 인한 자동차 전동화의 가속화로 '19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0만대를 돌파하는 등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, 제조사들은 전기차 전용플랫폼 개발에 집중
- ◆ 전용플랫폼 기반 신차 출시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한편, 자동차 제조사들은 플랫폼의 공유, 판매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예상

□ 환경규제로 인한 전동화의 가속화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개막

-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화석연료에 기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자동차 관련 다양한 규제를 마련
 - 대표적인 규제로는 연비/CO₂ 규제, ZEV* 크레딧 제도, 공해차량 제한지역 등이 있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내연기관차의 생산 및 판매 비중을 축소
 - * Zero Emission Vehicle :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
- 이러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차량 전동화(Electrification)에 집중하였고, 이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
 - 전기차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45% 성장하여 '19년 판매량 200만대를 돌파하였고, 이러한 고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*
 - * 시장조사기관 Marklines는 '30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의 약 20%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

자동차 관련 주요 환경 규제

규제 유형	내용
연비/CO ₂ 규제	제조사별 연비, CO ₂ 배출량 규제(韓 : 97g/km@2020)
ZEV 크레딧제도	판매량에 따른 친환경 차량 판매목표 의무화
공해차량 제한지역	내연기관차의 도심 진입 규제
내연기관 판매·생산 규제	내연기관차의 생산·판매 금지

자료 : 한국자동차공학회(2018.2), 친환경차 장기목표 수립을 위한 정책환경 연구, 산업은행 재구성

전기차 글로벌 판매량



자료 : IEA(2020.6), Global EV Outlook 2020

□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요 제조사들은 전기차 전용플랫폼 개발에 집중

- 기존의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공간 활용 및 주행거리 등 성능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
- 이에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를 위한 전용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, 이를 이용한 신차가 '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 예정
 - 전기차 전용플랫폼은 배터리를 차량 하부에 위치시키고 전륜 및 후륜에 전기모터를 배치한 형태로, 비교적 실내공간이 넓고 디자인 자유도가 높음
 - 또한 하나의 전용플랫폼으로 여러 차급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, 주행거리 및 주행성능 등 상품성에서 기존 차량 대비 우위에 있음

주요 자동차 제조사별 전기차 전용플랫폼 개발 현황

업체명	플랫폼명	파생모델(출시예정시기)
폭스바겐	MEB(Modularer E-Antriebs-Baukasten)	ID.3('20.9), ID.4('21)
현대자동차	E-GMP(Electric-Global Modular Platform)	아이오닉 5('21), 아이오닉 6('22)
GM	BEV3(Battery Electric Vehicle 3)	GMC Hummer('21), Cruise Origin('21)
다임러	MEA(Modular Electric Architecture)	EQS('21), EQE('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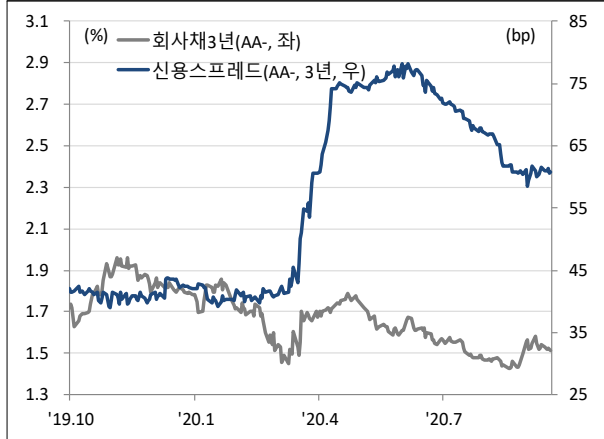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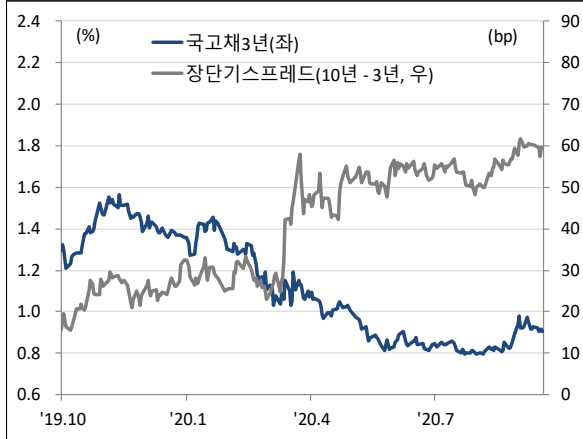
자료 : Marklines

□ 전용플랫폼 기반 전기차의 출시로 인해 전기차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

- '21년부터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되며 경쟁이 치열해짐과 동시에, 국내 전기차 보조금의 특정 브랜드 편중 현상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
 - 테슬라는 전용플랫폼으로 설계된 '모델3'의 본격적 판매 확대로 '20년 상반기 국내 전기승용차 판매의 43.3%를 차지하며 막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
 - *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'20년 상반기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 약 900억원을 수령
 - 추후 다양한 제조사의 전용플랫폼 기반 신차 출시와 함께 이러한 보조금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
- 또한 전기차 전용플랫폼은 단순히 차량 생산수단이 아니라, 플랫폼의 공유 및 판매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
 - 폭스바겐은 자체 개발한 'MEB' 전용플랫폼을 포드 등 타사에 제공하여 전기차 생태계를 확산시키고 규모의 경제 및 외연 확장을 추구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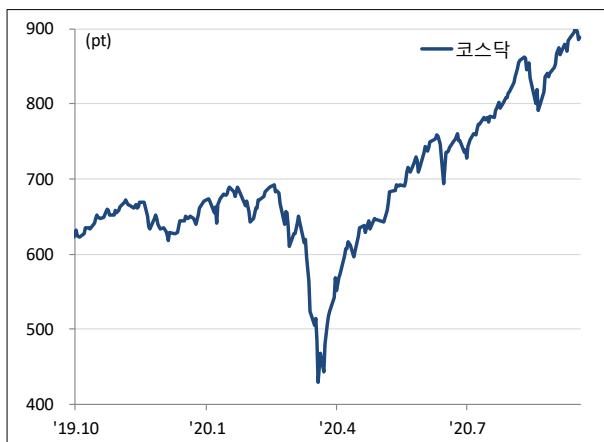
금리 국고채3년 0.907% (1.9bp ↓), 신용스프레드 60.8bp (0.8bp ↓)



환율 원/달러 1,160.3원 (26.6원 ↓), 엔/달러 104.57엔 (1.59엔 ↓)



주가 코스피 2,412.4pt (0.66% ↑), 코스닥지수 888.88pt (0.05% ↑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896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